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양 옥 경** · 김 연 수*** · 이 방 현****

A Study on Acculturation and Social Support System for Foreign Wives in Seoul*

Ok-Kyung Yang** · Yoen-Soo Kim*** · Bang-Hyun Lee****

요약 : 최근 한국남성과 결혼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의 면모를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에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가족생활 영위와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 304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으로는 통합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중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문화적응유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표집 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주는 기관을 이용하는 등 지역사회와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있는 자들이 연구대상자에 상당수 포함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전체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 중에서는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문화교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직업훈련 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사회적 서비스 이용 시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직원과의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에 모국어 상담 지원 서비스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진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내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문화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방안, 서울시 국제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비 및 전문성 강화를 기본으로 한 정책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국제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유형,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원방안

ABSTRACT : This study is on acculturation and social support system for foreign wives residing in Seoul, Korea. Korea is now being challenged to equip the society with receptiveness of foreign people and foreign culture. Foreign wives are coming into Korea through marriage to Korean me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ose wives' acculturation patterns and acculturative stress along with social support service needs. The survey was applied to the sample of 304 foreign wive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foreign wives residing in Seoul are acculturated at the pattern of integration, rather than

* 본 연구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다문화가족 지역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를 기초로 이루어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논문 주저자임.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Full-time Lecturer, Social Welfare Division, Baekseok University), 교신 저자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separation or marginalization. Besides, acculturative stress was quite low. In regards to social support system, the foreign wives revealed that they have the needs of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general social issues. They also showed high level of childcare needs and medical assistance along with vocational training. The foreign wives revealed that they experience a language barrier whenever they have to communicate with Koreans at social service centers. Thus, this study made suggestions on providing social services regarding empowerment of these wives, culture-sensitive assistance programs such as mentoring, and enhancing professional competence for this population.

Key Words : foreign wife, acculturation pattern,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system

I. 문제의 제기

오늘날 세계는 과학의 발전으로 그리고 기술진 문인력·산업연수생 수출입 등 경제적 이유로 인구의 이동이 손쉬워지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권장되어지기도 한다. 한국도 세계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 편입되고, 1991년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연수제도가 도입되면서 한국으로의 외국인의 유입이 본격화 되었다. 이제 한국의 수도이며, 경제의 중심인 세계적 도시, 서울의 길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익숙함이 최근 들어 가족 안에서도 종종 경험되고 있다.

통계청(2005)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총 결혼건수 316,375건 가운데 국제결혼 비율은 총 43,121건으로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이제 '일반적' 현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31,180건으로 9.8%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법적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형태로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는 가족유형까지도 거주비자(F-2)를 활용해 고려해 본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나 여성의 경우 67,441명, 남성의 경우 20,950명에 이르게 된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은 결혼과 함께 한국으로 이민해 오는 순간 기존에 자신이 익숙해져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그 상황이란 남편, 시댁식구, 이웃, 공무원 등 수많은 한국 사람들 그리고 음식, 풍습 등의 한국문화이다. 이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 가운데 국제결혼이주 여성이 일차적으로 상이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 곳은 바로 가족이다.

국내 다문화 가족에 대한 기존연구들로는 주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가족생활 및 복지에 대한 실태조사(강유진, 1999; 양철호 외, 2003; 보건복지부, 2005)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은희, 2004) 등이 있다. 이들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 사용능력의 부족과 남편과의 생활습관 및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한국에서의 가족생활과 지역사회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구체적으로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 가정폭력, 자녀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노부모부양문제, 시댁식구들의 무시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이들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며, 몸이 아프거나 건강상태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자들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 이들의 가족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지원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자녀들의 경우 한국어 구사 능력이 또래집단에 비해 떨어지거나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자료들은 주로 실태조사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 가족이 가족 내에서 문화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과 갈등이 무엇인지, 한국 남성과의 결혼으로 본국을 떠나 한국사회에 정착해야 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화적 충격과 한국문화적응 상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지역사회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에 기반을 둔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발견해내고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다문화 가족연구는 지방화의 추세와 함께 지역사회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충청남도, 경상남도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는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표명되었다(광주여성발전센터, 2003;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03; 전북발전연구원, 2005;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6). 그러나 다른 지역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분포비율¹⁾이 높은 서울 및 경인지역 등의 도심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회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며, 도시와 농촌의 문화가 다르고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도시지역에 맞는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방안이 새롭게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전국의 도시지역 중 가장 많은 수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서 이들과 이들의 가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와 정책 마련에 책임을 갖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을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 중 하나로 인정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고려를 전제로 서울지역 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생활 정착을 돕는 구체적인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과 생활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둘째,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알아보고, 이들의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생활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며, 셋째,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

1)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역별 분포비율(통계청, 2005), 지역(명, %) : 전국 66,912(100.0), 서울특별시 16,454(24.6), 부산광역시 3,753(5.6), 대구광역시 1,857(2.8), 인천광역시 4,114(6.1), 대전광역시 1,426(2.1), 광주광역시 1,301(1.9), 울산광역시 996(1.5), 경기도 16,681(24.9), 강원도 2,142(3.2), 충청북도 2,176(3.3), 충청남도 3,047(4.6), 전라북도 2,955(4.4), 전라남도 3,250(4.9), 경상북도 2,892(4.3), 경상남도 3,288(4.9), 제주도 580(0.9)

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의 결혼안정성을 높이고 가족 및 지역사회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정책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II. 문화적응유형

20세기 초 문화접촉 상황에서 적응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문화적응'이라는 개념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한 초기 연구들에서의 주된 논의는 문화적응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과 관련되었다.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이주가 빈번해지고 그에 따른 문화접촉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현상들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적응의 양태와 유형으로 관심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 문화적응 연구자들은 문화적응의 양태와 유형이 일정한 문화를 지닌 집단 속의 개인이 이주하게 됨으로써 새롭게 속하게 되는 사회의 문화, 즉 사회적 구조와 제도, 정치, 가치체계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대표적 연구자인 Ward et al.(2001)은 문화접촉의 결과를 집단수준의 결과와 개인수준의 결과로 나누어 집단수준에서는 학살(genocide), 동화(assimilation), 격리(segregation), 통합(integration)으로, 개인수준에서는 통과(passing), 국수주의(chauvinism), 주변화(marginalization), 중재(mediating)로 나누어 살펴보았다.²⁾ 나아가 이론적 체계와 함께 경험적인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연구를 더욱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최근 많은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는 Berry(1997)의 경우 문화적응과정을 정서, 행동, 인지적으로 광범위하

게 다루면서 두 개의 차원, 즉 1) 모국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 유지여부, 2)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여부에 따라 통합(integration), 분리(separation), 동화(assimil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로 구별해 냈다. 모국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형은 통합으로, 모국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하나 주류사회와의 관계가 소원한 유형은 분리로, 모국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지 않은 채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보다 많이 추구하는 유형을 동화로, 그리고 주류사회와 모국의 문화 모두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형을 주변화로 구분 지은 것이다.

Sam(1995) 등의 연구에서는 이민자들이 통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발견은 이민자의 본국과 현지의 문화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훈련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³⁾ 그러나 이 같은 적응유형은 서로 독립적이 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유동적인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이민자가 적응유형의 하나의 전략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통합 다음으로 선호하는 전략은 이민자들 모국의 문화와 개인적 성향·이민한 국가의 사회문화 정책 등에 따라 달리 선택되어질 뿐 아니라 발달과정상에서의 전략도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응유형 분류에 따른 연구결과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서비스 마련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방향성을 띄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2) 정진경·양계민(2004)에서 재인용함.

3) 상계서에서 재인용함.

줄 수 있을 것이다.

III. 서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황 및 특성

서울에는 한국 총 인구 4천 8백만 명 중 20.8%인 1천만 명 조금 넘는 수의 인구가 거주(통계청, 2005)하고 있다.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 들어온 국제결혼이주여성 중 24.6%인 20,418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2006), 2005년에 비해 3,964명이 증가한 것이고⁴⁾, 서울 인구의 0.2%에 달하는 수이다. 경기도에 이어 2번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 중에서도 이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영등포구이며, 그 다음으로 구로구, 관악구, 중랑구, 금천구 순으로 나타났다⁵⁾. 현재 서울에 가장 많이 들어온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중국동포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에 따른 각 구별 국제결혼이주여성 분포는 <별표 1>에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2005)가 전국단위로 조사한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타 지역과는 다른 서울지역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서울에는 중국 출신 동포여성이 12,116명으로 전체 중국동포 국제결혼이주여성의 38.02%, 서울 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60%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베트남 출신 여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필리

핀 여성이 베트남 여성보다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하여 들어온 비율이 높다고 보고한 보건복지부(2005)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서울에서는 베트남 출신 여성이 필리핀 출신 여성 보다 3배 많이 거주하고 있다. 셋째, 전국단위 조사(보건복지부, 2005)와 달리 서울에는 태국출신 여성보다 몽골출신여성이 더 많았다. 넷째,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 중에는 출신국 10위권에 미 국출신의 여성들(7위)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적별 인원이 100명이 넘는 국가에는 타이완도 해당된다. 즉, 서울에는 기타 선진국(미국, 대만 등) 출신의 50%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보건복지부(2005)는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기타 선진국 출신 여성의 수가 1,021명인데, 그 중 미국과 대만 출신을 합산하면 총 424명(42%)이다.

IV. 연구방법론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으로 사실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표집은 서울 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4) 전국 배우자 자격 거주비자(F-2) 외국인 수(통계청, 200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2006), (2005년도 명 → 2006년도 명, 증가수) : **서울특별시(16,454 → 20,418, 3,964)**, 부산광역시(3,753 → 3,888, 135), 대구광역시(1,857 → 2,388, 531), 인천광역시(4,114 → 4,994, 880), 대전광역시(1,426 → 1,899, 473), 광주광역시(1,301 → 1,531, 230), 울산광역시(996 → 1,362, 366), 경기도(16,681 → 20,847, 4,166), 강원도(2,142 → 2,275, 133), 충청북도(2,176 → 2,702, 526), 충청남도(3,047 → 3,873, 826), 전라북도(2,955 → 3,528, 573), 전라남도(3,250 → 3,713, 463), 경상북도(2,892 → 4,161, 1,269), 경상남도(3,288 → 4,574, 1,286), 제주도(580 → 675, 95), **전국(66,912 → 82,828, 15,916)**

5) 서울지역 배우자 자격 거주비자(F-2) 외국인 수(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2006) (명, %) : 강남구(491, 2.4), 강동구(912, 4.5), 강북구(807, 3.9), 강서구(967, 4.7), **관악구(1,099, 5.4)**, 광진구(818, 4.0), **구로구(1,245, 6.1)**, 금천구(1,032, 5.0), 노원구(860, 4.2), 도봉구(618, 3.0), 동작구(650, 3.2), 마포구(702, 3.4), 서초구(379, 1.9), 성동구(780, 3.8), 성북구(864, 4.2), 송파구(860, 4.2), 양천구(739, 3.6), 용산구(673, 3.3), 은평구(928, 4.6), 종로구(449, 2.2), 중구(441, 2.2), 중랑구(1,057, 5.2), 동대문구(1,025, 5.0), 서대문구(672, 3.3), **영등포구(1,350, 6.7)**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관계로 국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내의 복지관, 시민단체, 구청, 출입국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여성을 소개해주는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도 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미수거된 자료와 분석에 부적절한 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연구결과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304부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개인 및 가족에 관한 일반적 사항, 한국에서의 문화적응 상태,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사회복지 서비스이용 및 욕구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통계청(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남성과의 결혼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출신국을 참고하여 6개 국어(중국어, 일본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로 번안되었으며, 번안된 각 설문지는 해당 국가의 원어민 또는 전문가에게 감수를 받은 후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활용된 척도는 Barry(2001)의 '문화적응척도(Acculturation Scale)'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4~.85였으며, Sandhu and Asrabadi(1994)의 '문화적응스트레스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로 신뢰도값은 .94였다. 그 외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과 욕구를 묻는 질문지는 관련문헌 검토⁶⁾를 통해 작성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t-test, One-way ANOVA,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0~30대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에서는 고졸이, 결혼기간은 3년 미만인 자가 그리고 직업이 없이 전업주부인 자가 대다수였다. 연구대상자에 관한 구체적인 일반적 특성에 관한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2.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

1) 문화적응유형

본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유형을 '문화적응척도'를 사용하여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의 4가지 영역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응답자의 동화의 평균은 2.61점, 통합의 평균은 3.27점, 분리의 평균은 2.98점, 주변화의 평균은 2.28점으로 나타났다. <표 2>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문화적응유형 가운데 동화는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감을 유지함 없이 한국사회와 문화에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측면을 측정한 것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 응답자의 동화성향은 5점 척도에서 평균이 중간 보다 낮은 2.61점이었다. 동화를 측정한 항목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난 것은 '집

6) 김연희(2006), 김이선 외(2006), 설동훈·윤홍식(2005), 양철호 외(2003), Chatani(2001), Finch and Vega(2003), Simich et al.(2005), 빈부적 차 차별시정위원회(2006) 등

에 있을 때 대개 한국말을 사용한다'(3.51점)였다. 이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원이 모두 한국인이므로 한국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난 것은 '나는 모국어보다 한국어로 글쓰기를 더 잘 한다'(2.05점)였다. 그 외 '모국사람보다 한국사람과 더 잘 어울린다', '친구의 대부분이 한국사람이다' 등의 질문에서도 각 2.54점, 2.64점으로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운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제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동화의 전형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은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감을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체감도 함께 지니는 것으로 문화적응 유형의 4가지 영역 중 가장 지향해야 하는 유형으로 평가되는 영역이다. 연구대상자의 통합 평균은 3.27점으로 4가지 문화적응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로 산출되었다. 가장 높은 점수는 '한국인 친구와 모국인 친구가 모두 있다'의 3.63점이었다. '한국사람과 모국사람 모두 나를 귀중히 여긴다'와 '나는 한국사람이든 모국사람이든 누구와 있어도 편안하다'도 각 3.56점, 3.55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어와 모국어를 모두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 항목의 평균점수는 2점대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이처럼 통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통합을 측정한 질문들과 응답자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및 모국인과 모두 사귀는 것,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등 사교적 관계를 측정한 항목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본 연구 대상자가 주로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한국인 및 모국인 집단과 모두 활발한 교류가

있는 자들이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국제결혼이주여성 모집단이 갖는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이 모국문화의 정체감을 상실한 채 한국문화에 무조건적으로 동화되는 것 보다는 통합의 형태로 모국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정체감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문화적응 유형에 속한다는 점을 주지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이주여성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물론 가족들의 반대로 한국어 교실 등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이나 가정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생활하며 지역사회와 전혀 교류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이 포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체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분리의 평균점수는 2.98점으로 중간 수준이었으며, 주변화의 평균점수는 2.28점으로 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리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모국인들과만 교류하며 모국에 대한 문화적 정체감이 지배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리를 측정한 항목들 가운데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모국사람이다'(3.76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한국사람과 있을 때보다 모국사람과 있을 때 더 편안하다'(3.24점), '모국사람 모임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3.17점)가 높게 나타나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보다 모국인 친구를 더 가깝고 편안히 여기는 성향이 많음을 볼 수 있었다. 한국문화나 사회로부터 국제결혼이주여성이 분리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세부항목	빈도	비율(%)	세부항목	빈도	비율(%)
국 적	중국(동포)	45	14.8	베트남	85	28.0
	중 국	67	22.0	몽 골	19	6.3
	일 본	43	14.1	태 국	14	4.6
	필리핀	22	7.2	기 타	9	3.0
연 령 대	20세 이하	19	6.3	41세 - 50세 이하	39	12.8
	21세 - 30세 이하	134	44.1	51세 이상	4	1.3
	31세 - 40세 이하	103	33.9	무응답	5	1.6
	평균연령: 31.45세(표준편차: 8.40세), 최소값: 18세, 최대값: 62세					
결혼기간	1년 미만	74	24.3	5년 - 10년 미만	36	11.8
	1년 - 3년 미만	117	38.5	10년 이상	14	4.6
	3년 - 5년 미만	56	18.4	무응답	7	2.3
	평균: 35.71개월(표준편차: 39.81개월), 최소: 2개월, 최대: 255개월					
교육수준	무 학	2	0.7	전문대학 졸업	31	10.2
	초등학교 졸업	13	4.3	대학교 졸업	80	26.3
	중학교 졸업	50	16.4	대학원 졸업 이상	8	2.6
	고등학교 졸업	113	37.2	무응답	7	2.3
직업유무	있 음	71	23.4	없 음	227	74.7
가족월수입	100만원 미만	27	8.9	400만원 - 500만원 미만	6	2.0
	100만원 - 200만원 미만	80	26.3	500만원 이상	7	2.2
	200만원 - 300만원 미만	58	19.1	잘 모르겠음	102	33.5
	300만원 - 400만원 미만	24	7.9			

〈표 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 : 동화와 통합

한국에서의 문화적응		평 균	표준편차
동 화	나는 모국어 보다 한국어로 글쓰기를 더 잘 한다.	2.05	1.1364
	나는 집에 있을 때 대개 한국말을 사용한다.	3.51	1.1704
	만약 내게 시를 쓰라고 한다면, 나는 한국어로 쓰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다.	2.24	1.2276
	나는 모국사람들 보다 한국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린다.	2.54	.9893
	나는 한국 사람들이 모국사람들 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한다고 느낀다.	2.75	1.1160
	나는 모국사람들 보다 한국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쉽다.	2.85	1.1976
	나는 모국사람들 보다 한국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더 편안하다.	2.34	.9704
	학교나 직장에 있는 대부분의 나의 친구들은 한국인이다.	2.64	1.1665
	평 균	2.61	.6452
통 합	나는 농담할 때 한국어와 모국어를 둘 다 사용한다.	2.69	1.2323
	나는 모국어로 생각하는 만큼 한국어로도 잘 생각할 수 있다.	2.93	1.2433
	나는 한국인 친구와 모국인 친구가 모두 있다.	3.63	1.0886
	나는 한국 사람들과 모국사람들 모두 나를 귀중히 여긴다고 느낀다.	3.56	.9824
	나는 한국 사람이든 모국사람이든 누구와 함께 있어도 매우 편안하다.	3.55	.9927
	평 균	3.27	.7081

〈표 3〉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 : 분리와 주변화

한국에서의 문화적응		평 균	표준편차
분리	내가 듣는 대부분의 음악은 모국음악이다.	2.85	1.1742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모국사람이다.	3.76	1.1285
	나는 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국사람인 모임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3.17	1.1995
	나는 한국 사람들 보다 모국사람들이 나를 더 동등하게 대해준다고 느낀다.	2.87	1.1990
	나는 한국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보다 모국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편하다.	3.24	1.1377
	연애는 동일 인종끼리 해야 한다.	1.97	1.1436
	평 균	2.98	.6722
주변화	일반적으로 나는 한국 사람이든 모국사람이든 누구와도 사귀기 어렵다.	2.36	1.2228
	나는 때때로 한국 사람이나 모국사람이나 모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1.95	.9628
	나는 한국인이나 모국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2.26	1.0613
	나는 때때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2.85	1.1162
	나는 때때로 친구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2.60	1.1162
	나는 때때로 한국 사람이나 모국사람이나 모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낀다.	1.88	.7640
	나는 때때로 한국 사람이나 모국사람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2.20	1.0178
	나는 종종 한국 사람들이나 모국사람들 모두 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2.30	1.0308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지 않다	2.10	1.0548
	평 균	2.28	.5771

반면, 주변화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감뿐 아니라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체감도 형성하지 못한 상태로 사회적 관계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되는 특성을 측정한 것이다. 주변화를 측정한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난 문항은 ‘때때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와 ‘때때로 친구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로 각 2.85점, 2.60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난 항목은 ‘한국사람이나 모국사람 모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낀다’와 ‘한국사람이나 모국사람 모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로 평균점수가 모두 1점대로 질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서울시 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 응답자의 대다수가 한국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하거나 친구를 사귀는데 다소 간의 어려움은 경험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껴 사회적 관계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고 단절시키는 경향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의 차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출신국에 따라 동화와 통합유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동화영역에서는 중국(동포)의 평균이 3.08점으로 가장 높게 산출되었으며, 필리핀 출신의 여성이 1.9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통합영역에서는 베트남과 중국(동포) 출신의 점수가 높았으며, 필리핀 출신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문화적응의 4유형 모두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교육수준에서는 동화와 주변화영역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두 영역

모두에서 중졸이하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졸 이상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자신의 출신국 문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낮고, 한국문화에 무조건적으로 동화되거나 또는 출신국과 한국문화 모두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화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것이므로 이들 집단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직업이 있는 집단에서 통합영역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이주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경우 한국사회에 통합되는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남편과의 연령 차이에 따른 분석에서는 연령차이가 높은 집단일수록 동화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결혼기간에 따른 문화유형 차이에서는 주변화 영역만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결혼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 주변화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5년 초과 집단의 주변화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수입에 따른 분석에서는 통합과 주변화 영역에서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300만원이상으로 가족 수입이 높은 집단에서 통합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주변화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수입이 낮거나 가족의 월수입을 알지 못하는 집단에서 통합영역의 점수가 낮고, 주변화 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출신국별로는 다른 집단에 비해 한국어 의사소통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 중국(동포) 집단에서 동화와 통합유형이 높았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와 가족월수입이 높은 경우 한국사회에 대한 문화적응에서 통합유형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집단, 가족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으로 낮거

나 또는 가족수입 자체를 알지 못하는 여성들일수록 주변화 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이들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을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에 상세히 제시하였다.

3) 문화적응스트레스

본 연구대상자가 한국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그 하위영역인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증오감, 두려움, 문화충격 등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국제결혼이주여성 응답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5점 척도에서 2.30점으로 중간 점수 보다 낮게 산출되어 응답자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위영역에서도 향수병이 2.86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각된 차별감 2.24점, 지각된 증오감 2.02점, 두려움 2.10점, 문화충격 2.41점, 죄책감 2.0점, 그리고 기타 영역 2.44점 등 역시 모두 낮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은 적응상의 스트레스를 심하게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영역 가운데 중간 점수인 3점에 가장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난 향수병은 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들이 모국과 모국의 가족 및 친지들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문화충격 역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들어와 음식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여러 가지 압박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등 한국사회의 생활에서 인식하는 지각된 차

〈표 4〉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의 차이

특성	유형		평균	표준편차	F값	유형		평균	표준편차	F값
출신국별	동화	중국(동포)	3.08	.6102	21.718 (p=.000)	분리	중국(동포)	2.94	.6291	.739 (p=.594)
		중 국	2.73	.5171			중 국	2.89	.5769	
		일 본	2.08	.5934			일 본	2.91	.7535	
		필리핀	1.97	.4250			필리핀	3.09	.7287	
		베트남	2.73	.5021			베트남	3.06	.6029	
		기타(태국/몽골 등)	2.57	.6742			기타(태국/몽골 등)	3.00	.8603	
	통합	중국(동포)	3.41	.7112	6.215 (p=.000)	주변화	중국(동포)	2.37	.5973	1.966 (p=.084)
		중 국	3.22	.6125			중 국	2.31	.4713	
		일 본	2.95	.7205			일 본	2.04	.5769	
		필리핀	2.79	.6733			필리핀	2.35	.3915	
		베트남	3.47	.6526			베트남	2.32	.5092	
연령대별	동화	20세 이하	3.40	.7561	.753 (p=.556)	분리	20세 이하	2.25	.8316	1.355 (p=.250)
		21세-30세 이하	2.62	.5653			20세 이하	3.02	.5275	
		31세-40세 이하	2.67	.6190			21세-30세 이하	3.03	.6595	
		41세-50세 이하	2.53	.6606			31세-40세 이하	2.92	.7295	
		51세 이상	2.66	.7309			41세-50세 이하	3.00	.5768	
	통합	20세 이하	2.57	.7203	.692 (p=.598)	주변화	51세 이상	2.33	1.1626	.718 (p=.580)
		21세-30세 이하	3.47	.7184			20세 이하	2.27	.5188	
		31세-40세 이하	3.28	.7113			21세-30세 이하	2.33	.5670	
		41세-50세 이하	3.25	.6941			31세-40세 이하	2.23	.5389	
		51세 이상	3.22	.7176			41세-50세 이하	2.28	.7388	
교육수준별	동화	중졸 이하	2.95	.9146	16.658 (p=.000)	분리	51세 이상	1.94	.7056	2.199 (p=.113)
		고 졸	2.85	.5911			중졸 이하	3.14	.6193	
		전문대졸 이상	2.74	.5899			고 졸	2.94	.6793	
	통합	중졸 이하	2.37	.6548	2.257 (p=.106)	주변화	전문대졸 이상	2.94	.6923	8.413 (p=.000)
		고 졸	3.44	.7251			중졸 이하	2.42	.5374	
		전문대졸 이상	3.22	.6808			고 졸	2.36	.5836	
직업유무	동화	있 음	3.25	.7083	1.363 (p=.174)	분리	전문대졸 이상	2.11	.5614	-1.292 (p=.197)
		없 음	2.71	.6886			있 음	2.89	.6228	
	통합	있 음	2.59	.6302	2.127 (p=.034)	주변화	없 음	3.01	.6883	-1.018 (p=.310)
		없 음	3.43	.7350			있 음	2.22	.6316	
남편과의연령차이	동화	없 음	3.22	.6888	3.539 (p=.008)	분리	없 음	2.30	.5634	1.104 (p=.355)
		동갑/연하	2.42	.7725			동갑/연하	2.86	.5977	
		1세-5세 차이	2.48	.6700			1세-5세 차이	3.00	.7084	
		6세-10세 차이	2.59	.6225			6세-10세 차이	2.86	.7280	
		11세-20세 차이	2.77	.6187			11세-20세 차이	3.04	.6476	
	통합	21세 이상 차이	2.80	.4185	.919 (p=.453)	주변화	21세 이상 차이	3.07	.5718	1.609 (p=.172)
		동갑/연하	3.15	.7327			동갑/연하	2.08	.6272	
		1세-5세 차이	3.27	.7174			1세-5세 차이	2.23	.6416	
		6세-10세 차이	3.23	.6886			6세-10세 차이	2.26	.6274	
		11세-20세 차이	3.28	.6766			11세-20세 차이	2.37	.4828	
결혼기간	동화	21세 이상 차이	3.49	.7498	1.693 (p=.186)	분리	21세 이상 차이	2.34	.5401	2.098 (p=.125)
		2년 미만	2.67	.5789			2년 미만	3.01	.6206	
		2년 - 5년	2.56	.6640			2년 - 5년	3.02	.6570	
	통합	5년 초과	2.49	.7706	.181 (p=.834)	주변화	5년 초과	2.80	.7603	3.150 (p=.044)
		2년 미만	3.30	.6968			2년 미만	2.34	.5153	
		2년 - 5년	3.27	.7147			2년 - 5년	2.27	.6505	
가족월수입	동화	5년 초과	3.23	.7385	.714 (p=.583)	분리	5년 초과	2.10	.5649	1.390 (p=.238)
		100만원 미만	2.51	.7452			100만원 미만	3.21	.6893	
		100만원-200만원 미만	2.60	.6248			100만원-200만원 미만	2.96	.6500	
		200만원-300만원 미만	2.64	.6949			200만원-300만원 미만	3.02	.7201	
		300만원 이상	2.65	.6090			300만원 이상	2.82	.7195	
	통합	모름	2.47	.6454	4.089 (p=.003)	주변화	모름	3.04	.6879	2.920 (p=.022)
		100만원 미만	3.13	.7227			100만원 미만	2.25	.5266	
		100만원-200만원 미만	3.28	.7035			100만원-200만원 미만	2.41	.6166	
		200만원-300만원 미만	3.32	.6779			200만원-300만원 미만	2.23	.5589	
		300만원 이상	3.47	.5961			300만원 이상	2.03	.5573	
		모름	2.96	.6673			모름	2.27	.5772	

별감이나,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이 속한 모국 문화의 가치를 비웃는다고 인식하는 등

지각된 증오감의 수준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온 자들이 경험하

〈표 5〉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지각된 차별감	2.24	.7765
향수병	2.86	.8504
지각된 증오감	2.02	.7539
두려움	2.10	.7393
문화충격	2.41	.8619
죄책감	2.00	.8516
기타	2.44	.6866
전체	2.30	.6073

는 사회적 차별감의 경험과 비교해볼 때 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의 경우 실제 한국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차별감의 경험이 다소 낮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기타 영역에 해당하는 질문에는 ‘나의 조국사람들이 이곳에서 열등하게 취급받는데 분노를 느낀다’, ‘이 곳 사람들이 내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2개 항목은 전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한 36개 항목 가운데 평균이 각각 3.11점, 3.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이었다. 기타 영역에 속하는 다른 질문으로 ‘나는 나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열등하게 느낀다’와 ‘나는 내가 다른 출신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 사귀려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등은 각 1.96점, 1.83점으로 낮게 나타나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출신국적 배경이 다름으로 인해 느끼는 열등감이나 차별감이 적은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그 외의 질문으로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2.74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주저함을 느낀다’(2.42점), ‘이 곳에서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2.25점) 등으로 모두 중간 보다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 상관관계
이상에서 살펴본 국제결혼이주여성 응답자의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문화적응의 4가지 유형 가운데 통합, 분리, 그리고 주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표 6〉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 상관관계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
문화적응 스트레스	pearson's r	-.035	-.231***	.362***	.490***

***p<.0000

통합의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계수는 -.231로 부(-)의 상관관계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으면 통합이 어렵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분리와 주변화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분리와 주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복지욕구

1) 이용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및 원조를 받는 복지제도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이용 경험에 있는 자가 각각 6.6%, 1.6%로 소수의 응답자만이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 가운데 가족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는 자가 전체의 8.9%,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표 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 이용도

명 (%)

이용했던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국민기초생활보장	20(6.6)	268(88.2)	16(5.3)	정신건강 상담	8(2.6)	280(92.1)	16(5.3)
긴급복지 지원제도	5(1.6)	283(93.1)	16(5.3)	가정폭력 상담	6(2.0)	282(92.8)	16(5.3)
건강보험	113(37.2)	175(57.6)	16(5.3)	가족상담 및 프로그램	12(3.9)	275(90.5)	17(5.6)
의료급여	75(24.7)	212(69.7)	17(5.6)	한국어교육	162(53.3)	125(41.1)	17(5.6)
고용보험	7(2.3)	281(92.4)	16(5.3)	한국문화교육(언어/풍습/음식 등)	76(25.0)	212(69.7)	16(5.3)
산재보험	7(2.3)	280(92.1)	17(5.6)	국적취득관련 정보 제공 및 원조	27(8.9)	260(85.5)	17(5.6)
신체적 보호 및 거주지제공	9(3.0)	279(91.8)	16(5.3)	기타 필요한 정보제공 및 원조(법률, 의료, 취업 등)	17(5.6)	271(89.1)	16(5.3)
보육서비스	14(4.6)	274(90.1)	16(5.3)	기타	9(3.0)	279(91.8)	16(5.3)
직업훈련 및 알선	12(3.9)	276(90.8)	16(5.3)	어떤 서비스도 이용한 적 없음	34(11.2)	254(83.6)	16(5.3)

자가 2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볼 때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 중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은 복지제도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제결혼이주여성 가족이 이러한 복지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서비스이용과 관련된 복지제도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을 이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37.2%, 의료급여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24.7%로 나타나 다른 복지제도와 비교 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의 제도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응답자도 전체의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의료서비스이용 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중 어느 쪽으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 집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이용경험은 각각 2.3%씩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23.4%만이 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다수가 가사도우미나 식당/가게 등에서 일하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여 실제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과 관련이 있는 결과이다.

이들이 이용한 복지서비스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으로 전체 응답자의 53.3%가 한국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언어, 풍습, 음식 등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자도 25%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다수가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이나 문화교실 등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시민단체, 구청 등으로부터 모집된 것과 관련이 있다. 아동양육과 관련된 서비스인 보육서비스는 응답자의 4.6%가 이용경험이 있었으며, 직업훈련 및 알선서비스와 가족상담서비스에 대한 이용도는 각 3.9%씩으로 소수만이 이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족문제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직업훈련 및 연계 서비스를 필요로

〈표 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명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기관 직원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85 (28.0)	123 (40.5)	96 (31.6)	서비스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25 (8.2)	184 (60.5)	95 (31.3)
서비스 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워서	62 (20.4)	147 (48.4)	95 (31.3)	기관 직원이 결혼이민자를 한국 사람과 다르게 차별적으로 대우해서	11 (3.6)	198 (65.1)	95 (31.3)
나에게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워서	43 (14.1)	166 (54.6)	95 (31.3)	가족이 복지시설 이용을 반대하아서	10 (3.3)	198 (65.1)	96 (31.6)
기관 직원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서비스 내용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해서	26 (8.6)	182 (59.9)	96 (31.6)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져서	6 (2.0)	201 (66.1)	97 (31.9)

하는 더 많은 이주여성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국적취득관련 서비스 이용도는 8.9%, 법률, 의료, 취업 등 기타 필요한 정보제공 및 원조 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은 5.6%로 보육서비스나 직업훈련서비스 이용도 보다는 높은 이용률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이용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폭력상담 서비스 이용도는 2%, 신체적 보호 및 거주지 제공 서비스 이용도는 3%였다.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는 11.2%로 나타나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를 이주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과 이용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파악되었다.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경험한 어려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경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한 영역은 ‘기관의 직원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로 전체 응답자의 28%가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한국어가 서툰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사회복지기관을 찾아가다 하더라도 그 곳의 직원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현 실정을 잘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이주여성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 또는 통역사를 배치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및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요청된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어려움의 영역은 ‘서비스 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워서’(20.4%), ‘나에게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워서’(14.1%)였다. 서비스이용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기관이 위치해있는 소재지를 잘 모르거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용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가 매우 부족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외에 ‘기관의 직원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서비스 내용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하아서’(8.6%)와 ‘서비스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8.2%) 등의 결과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이

〈표 9〉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명 (%)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85 (28.0)	128 (42.1)	91 (29.9)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18 (5.9)	195 (64.1)	91 (29.9)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79 (26.0)	134 (44.1)	91 (29.9)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서	16 (5.3)	196 (64.5)	92 (30.3)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72 (23.7)	141 (46.4)	91 (29.9)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13 (4.3)	200 (65.8)	91 (29.9)
기관의 직원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52 (17.1)	161 (53.0)	91 (29.9)	가족이 복지시설 이용을 반대하여서	1 (0.3)	212 (69.7)	91 (29.9)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돈이 부족해서	20 (6.6)	192 (63.2)	92 (30.3)	기타	14 (4.6)	199 (65.5)	91 (29.9)

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직원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기관의 직원이 결혼이민자를 한국 사람과 다르게 차별 대우하여서’(3.6%), ‘가족이 복지시설 이용을 반대하여서’(3.3%), ‘서비스를 받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져서’(2.0%) 등에는 매우 소수만이 해당되어 정서적 거리보다는 제도상의 문제로 지적되었다.

3)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28%),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26%),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23.7%) 등이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종류,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의 가족생활과 지역사회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당면 과제임을 표명하는 것이다. 또한 ‘기관의 직원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가 전체의 17.1%로 나타나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통역서비스 등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5.9%),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4.3%),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서’(5.3%) 등에 응답한 자가 소수 포함되어 있었다. ‘가족이 복지시설 이용을 반대하여서’는 0.6%로 이에 응답한 자는 전체 사례 중 1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 모집의 상당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의 반대로 복지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연구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가족의 반대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주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이용 욕구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이용 욕구							
순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순위	항목	평균	표준편차
1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	4.14	.9833	13	부모역할교육	3.56	1.2492
2	한국어교육	4.12	1.1004	15	여가활동참여기회제공(영화,음악회 등)	3.55	1.0912
3	건강보험혜택 및 의료비 지원	3.95	.9971	16	한국인 멘토(mentor) 연결 프로그램	3.54	1.1368
4	자녀교육지원(학습지도서비스)	3.89	1.1905	17	문화체육시설 이용 지원	3.42	1.1204
5	한국 전통문화 및 예절교육	3.86	1.0411	18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	3.39	1.1568
6	자녀양육지원(보육서비스)	3.81	1.2303	19	노부모부양 및 수발지원 서비스	3.32	1.3352
7	직업훈련 및 알선	3.74	1.1572	20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3.31	1.2469
8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 지원 (은행/시장/도서관 등)	3.67	1.1219	21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3.30	1.2750
9	법률관련 정보서비스	3.65	1.1570	21	경제적 지원(생계비 등)	3.30	1.3093
10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	3.63	1.0762	23	모국문화 가족에게 알리기	3.23	1.1252
11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인식개선 캠페인	3.60	1.0879	24	모국문화 한국 지역사회에 알리기	3.18	1.0989
12	국적취득지원서비스	3.58	1.3078	25	가정폭력 관련 상담 및 서비스	2.77	1.3975
13	주택지원(영구임대주택 등)	3.56	1.3011	-	전 체	3.58	0.7409

4)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5점 척도로 측정한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은 각각 4.14점과 4.12점의 높은 욕구를 나타냈다. 이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가족생활에 적응해나가는 데 가장 시급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욕구가 ‘한국어’와 ‘한국음식 만들기’에 대한 교육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욕구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 전통문화 및 예절교육’에 대한 욕구도 3.86점으로 5번째로 순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언어와 음식뿐 아니라 한국문화와 예절을 습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서 통합형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다소 상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문화적응 유형을 측정하는데 있어 통합형의 측정항목들이 실제

연구대상자가 한국문화에 어느 정도 통합된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 측정 상의 한계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문화적응 유형에서 통합형의 점수가 높은 것과 복지욕구에서 한국어 교육 및 문화습득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연결해볼 때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사회에 통합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높은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학습지도 서비스를 포함한 ‘자녀교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3.89점으로 높았으며, 보육 서비스인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3.81점으로 높게 나타나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 및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혜택에 대한 욕구도 3.95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질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의 제도권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적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직업훈련 및 알선'에 대한 욕구는 3.74점으로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욕구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적취득지원 서비스' 및 '법률관련 정보 서비스'에 대한 욕구수준은 각각 3.58점, 3.65점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국적취득을 위한 지원과 기타 한국생활과 관련된 법률관련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는 욕구도 높은 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국적취득에 관한 정보 및 한국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법률적 자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제공 기관의 선정 및 이를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본적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는 3.3점, 영구임대주택 제공 등 '주택지원'에 대한 욕구는 3.56점으로 나타나 경제적 지원과 주택지원에 대한 욕구수준도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가족 내에서의 부모역할이나 가족원 간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로는 '부모역할교육'이 평균 3.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3.31점,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3.30점으로 나타났다. 시부모 부양과 관련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로 '노부모부양 및 수발지원 서비스' 3.32점,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 3.39점이었다. 가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 욕구 가운데 '가정 폭력 관련 상담서비스'는 2.77점으로 다른 복지서비스에 비해 욕구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인 멘토(mentor)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3.54점, 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들 간의 친목과 사회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인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욕구는 3.6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모국의 문화를 한국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모국문화 가족에게 알리기'의 경우 3.23점, '모국문화 한국 지역사회에 알리기'의 경우 3.18점으로 꽤 높은 욕구수준을 보였다.

이 외의 사회적 서비스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로는 영화, 음악회 등 '여가활동 참여 기회 제공' 3.55점, '문화체육시설 이용 지원' 3.42점, 은행, 시장, 도서관 등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 지원' 3.67점, 그리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인식개선 캠페인' 3.6점으로 각각 나타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내 문화 및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욕구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결혼이주여성 응답자의 사회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58점으로 꽤 높은 것으로 산정되었다. 그러므로 제시된 복지욕구가 사회복지정책 및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겠다.

5)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이용욕구와 문화적응유형, 문화적응스트레스 간 상관관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이용욕구의 전체 평균과 4가지 문화적응 유형,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이용 욕구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이용에 대

한 욕구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문화적응 상의 갈등과 어려움이 많은 집단에 대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이용욕구와 문화적응 유형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었다.

<표 11> 복지욕구와 문화적응 유형 및 스트레스 간 상관관계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	문화적응 스트레스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욕구	pearson's r	.061	.060	.022	.089	.128*

*p<.05

VI. 정책제언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 및 지역사회생활 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지원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해나가는데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에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방안으로 한국음식, 전통문화, 역사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국제결혼이주여성 가운데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자들이 한국사회 내에서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활용하여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다문화적 강점과 능력 및 경험을 살려 이들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및 사회적 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와 지원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복지 및 사회적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 시설에 대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 된 다국어판 안내자료와 홍보물의 출간과 보급이 필요하다.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등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지역사회 내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증진을 통해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이러한 자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내 버스/지하철 노선,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에 대한 이용법 등을 다국어로 번안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그들의 모국어로 된 안내책자들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기관이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제공하는 한국인 멘토 연결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한국인 멘토를 연결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른 정보와 조언을 제공받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인 멘토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로 하는 것이 좋으며, 한국인 멘토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지역사회별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5)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출신국별 자조집단 구성 및 운영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부딪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지지해줄 수 있는 출신국별 자조집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서울시내 각 복지관이나 이주여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2. 문화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모국문화에 대한 가족의 이해 증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주여성의 모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남편과 자녀를 중심으로 아내 또는 엄마의 모국 문화와 언어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부부가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및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 내의 기관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지원 방안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자녀를 한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의 자녀의 나이 및 각 발달단계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학교 교사와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그 외의 양육 및 교육에 관해 궁금한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이 필요하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때 현행 지역사회내의 보육서비스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3. 국제결혼이주여성 및 가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비 및 전문성 강화

1)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을 위한 시설 확충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다국어 상담센터'의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 시내의 병원이나 사회복지기관 중 특정 기관 몇 곳을 지정하여 다문화 가족의 시설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통역자 또는 도우미를 배치하여 시설 이용의 어려움이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는 실무자나 활동가들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가족적 및 문화적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문화적 민감성에 바탕을 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무자들이 이주여성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며, 다문화 가족 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가치관의 상충과 갈등

등, 생활습관과 방식의 차이, 자녀양육의 문제 등에 개입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에게 개입하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실무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실무자 교육을 전담하는 중앙 기관이나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제공되는 한국어 교실, 한국문화 및 예절 교육, 부부관계증진 및 다양한 가족관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전문적 자격을 갖춘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강사 은행(bank)제도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전문 강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4.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 및 긍정적 인식 증진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중의 한 유형으로 바라보며,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집단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모국문화를 한국의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는 문화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VII.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과 복지서비스 이용 및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 그리고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과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문화적응 유형,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이용 욕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광범위한 영역의 조사결과에 기반 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과정에서 표본선정의 편향성과 설문조사의 한계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제시되는 자료와 같이 개별 대상자들의 문화적응과 복지욕구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 선정 시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자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하는 자들을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표집하였으므로, 서울시 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별 분포비율에 따른 확률표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이주여성들이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타 이주여성들과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것으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며, 전체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것이므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개별화된 문화적응 상의 어려움과 갈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점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먼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와 모집단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후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한 확률표집을 통해 연구대상자를 표집하는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야기되는 어려움과 갈등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나가는지 등에 관해 심층인터뷰 방식을 활용한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강유진, 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경남발전연구원, 2006,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 개발방안』.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6, 『국제여성정책심포지엄 : 다문화사회 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삶』.
- 광주여성발전센터, 2003, 『외국인 주부 실태조사』.
- 김연희, 2006, “문화적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실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및 지원전략』, 151~164.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6-2-07.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 빈부격차·차별지정위원회, 2006, 『74회 국정과제회의 본보 고서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2006, 미발표자료.
- 설동훈·윤홍식, 2005,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47~265.
- 양철호·김영자·손순용·양선화·신봉관·조지현, 2003, “외국인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6(1): 127~149.
- 전북발전연구원, 2005,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정진경·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101~136.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03, 『충남 거주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 모색 워크샵 자료집』.
- 통계청, 2005, 『인구동태조사』.
- 한국여성개발원,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 Ba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Chatani, K., 2001, *Creating Comfort: Social Support Communication and Cross-cultural Adaptation of Sojourner Women*, The Ohio State University.
- Finch, B. K. and Vega, W. A., 2003, “Acculturation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Rated Health Among Latinos in California”, *Journal of Immigrant Health*, 5(3): 109~117.
- Sam, D. L., 1995, “Acculturation attitudes among young immigrants as a function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toward cultural chang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 238~258
- Sandhu, D. S. and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Simich, L., Beiser, M., Stewart, M., and Mwakariba, E., 2005, "Providing Social Support for Immigrants and Refugees in Canada: Challenges and Directions", *Journal of Immigrant Health*, 7(4): 259~268.
- Ward, C., Bochner, S., and Furnham, A.,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East Sussex: Rourledge.
- <http://seoul.immigration.go.kr>.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http://kosis.nso.go.kr>. (KOSIS 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IN0001&IDTYPE=3&A__LANG=1&FPUB=3 [인구동태조사(2005)]
-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출입국관리 통계연보(2005)]
-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83019&IDTYPE=3&A__LANG=1&FPUB=3&SELITEM=&CLASS1=E
- 원 고 접 수 일 : 2007년 4월 4일
1차 심사 완료 일 : 2007년 4월 30일
최종원고 채택 일 : 2007년 5월 15일

〈별표 1〉 서울지역 배우자 자격 거주비자 (F-2)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서울시	중국 (동포)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미국	러시아 연방	태국	우즈베 키스탄	타이완	합계 (명)
강남구	199	78	58	29	7	4	62	15	3	4	6	465
강동구	495	198	58	87	25	11	6	8	3	7	4	902
강북구	480	136	42	59	15	26	2	8	11	3	1	783
강서구	572	152	62	56	36	11	7	13	14	15	6	944
관악구	703	165	65	74	17	9	10	6	8	6	5	1,068
광진구	497	130	73	41	13	18	9	7	6	3	4	801
구로구	828	215	56	64	30	10	4	3	8	8	-	1,226
금천구	673	202	40	47	18	15	3	7	6	10	-	1,021
노원구	513	151	59	55	17	11	5	9	2	11	6	839
도봉구	362	104	37	43	21	15	4	4	7	4	3	604
동작구	375	111	42	52	9	9	7	7	9	4	6	631
마포구	369	122	60	39	15	14	6	9	14	6	4	658
서초구	189	60	40	13	8	3	36	7	4	4	1	365
성동구	434	144	37	67	18	22	11	9	10	7	9	768
성북구	502	141	48	55	27	27	9	13	14	5	3	844
송파구	493	146	61	58	16	10	18	18	3	7	9	839
양천구	439	120	48	41	24	11	6	10	12	8	7	726
용산구	343	89	68	28	24	4	39	33	4	13	4	649
은평구	541	149	70	75	21	17	1	15	11	9	4	913
종로구	269	64	29	24	6	14	17	-	2	3	3	431
중구	250	69	28	25	2	15	11	10	4	8	6	428
중랑구	644	190	50	70	22	32	2	13	11	4	3	1,041
동대문구	670	170	47	44	23	27	3	7	7	8	1	1,007
서대문구	361	114	53	48	13	9	13	12	8	11	16	658
영등포구	915	212	58	49	29	13	14	7	10	8	8	1,323
총계(명)	12,116	3,432	1,289	1,243	456	357	305	250	191	176	119	19,934
% *	59.34	16.81	6.31	6.09	2.23	1.75	1.49	1.22	0.94	0.86	0.58	97.63

*서울 거주 전체 국제결혼이주여성(100%)의 57개 출신국 중 국적별 총 인원 100명 미만 46개 국가(2.37%)의 484명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출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2006)